

환율 하락과 해외건설... 적극적 환리스크 관리 필요

정 창 구 |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

최근 몇 개월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건설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 즉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반해 엔/달러 환율은 급격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연초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환율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원/달러 평균 환율이 대체로 1,070~1,08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시작한 소위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인해 정부 개입 등 국내외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원화의 강세 기조는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을 대략 1,050~1,070원 정도로 예측한 상태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올해는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 같은 환율 하락의 파급 효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환(換)해지 사례를 들어 환율 하락이 실제 해

<표 1> 최근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구분	2011. 3/4	2011. 4/4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2013. 1/4*
원/달러	1,083.04	1,144.75	1,131.47	1,151.81	1,133.54	1,090.86	1,078.45
엔/달러	77.79	77.37	79.25	80.17	78.65	81.06	91.68
원/엔(100)	1,392.69	1,479.67	1,427.86	1,436.85	1,441.20	1,346.13	1,176.13

주 : 1) 환율은 대상 기간의 평균 환율(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 기준)임.

2) * 2013. 1/4분기 환율은 3월 15일까지의 평균 환율임.

외건설업체의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해외건설 유·불리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美달러화 표시 부채가 美달러화 표시 자산보다 많은 업체, 다시 말해 美달러화 차입금이 많은 업체(금리 등 여타 요인은 미감안)들과 주로 플랜트업체 중 외산 기자재 구매 비율이 높은 업체들일 것이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주로 환리스크 관리를 거의하지 않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일 것이며, 미국계 엔지니어링업체 등과 플랜트 수주를 위해 가격 협상 중인 플랜트업체들도 해당될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다소 단순하게 예시한 면이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평균 10% 하락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대처하고 있는 환리스크 관리 방법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각각 분석한 후 그 파급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대기업에 미치는 효과

먼저, 사우디에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 중인 A건설사는 대기업으로, 과거 USD화로 계약한 공사 대금 중

공사 원가	기자재비 : 공사비 : 경비 : 기타	외산 기자재 : 국산 기자재
비율	40% : 30% : 20% : 10%	70% : 30%
금액	4.5억 달러 : 2.5억 달러 : 1.8억 달러 : 1.2억 달러	3.15억 달러* : 1.35억 달러

주 : * 외산 기자재 결제 금액 3.15억 달러의 통화별 비율은 USD : EUR : SAR = 65% : 20% : 15% $\approx$ 2.05억 달러 : 0.63억 달러 : 0.47억 달러임

올해 총 10억 달러를 수령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외환관리 방법이다. 총 공사비(10억 달러) 중 원가 구성 비율 등 일반적인 결제통화 비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대기업 A사의 외환관리 방법은 통상 다음의 3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Matching 전략이다. 즉, 공사 대금 수령액의 40%인 4억 달러는 주로 공사비, 경비 및 USD화 기자재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환 매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후 사용한다. 이때 각각의 사용처를 보면, 공사비로 2.5억 달러, 경비로 0.8억 달러, 나머지는 USD화 기자재비로 0.7억 달러이다. 둘째, 선물환 거래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환헤지(hedge) 전략으로 총 공사 대금의 30%인 3억 달러는 주거래 은행과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자재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사용처를 보면, USD화 이외의 기자재비로 1.26억 달러, 국내산 기자재비로 1.35억 달러, 기타 용도로 0.39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은 Open Position

달러는 그대로 환리스크에 노출시켜 일반적인 경비나 USD화 기자재 구매 용도로 수시로 환전하여 사용한다. 이때 각각의 사용처는 일반적인 경상경비 명목으로 1억 달러, USD화 기자재 구매 비용으로 1.19억 달러, 기타 0.81억 달러이다.

대기업 A사의 환율 하락에 따른 손익을 분석해보면, 환헤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open position)인 3,000만 달러(3억 달러 $\times$ 10%)에 선물환 거래 및 외산 기자재 구매 대금 중 불일치 통화(40%)만 큼 swap 거래 비용 등 금융기관을 통한 헤지 비용이 대략 150만 달러(3억 달러 $\times$ 0.5%)로 3,15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 반면, 외산 기자재 중 원화 대가로 구매하는 기자재 부분은 원화절상으로 인해 오히려 환차익이 1,190만 달러(1.19억 달러 $\times$ 10%)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1,960만 달러(3,150만 달러 - 1,19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 정도 하락하더라도 실제 손실 비율은 총공사비(10억 달러)의 1.96%(1,960만 달러) 정

도로 분석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환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추가적인 손
실 감소도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

사우디에서 토목 공사를 수행 중
인 B건설사는 중소기업으로, 금년에
수령할 공사 대금이 총 1,000만 달러
인데 그 중 80%는 USD화로 나머지
20%는 현지화인 SAR화로 수령하기
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재하도급 공
사 비율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중소기업 B사의 외환관리 방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기성금 등이
입금되면 USD화(800만 달러) 중
70%인 560만 달러는 바로 환전하여
국산 및 EUR 기자재 구매와 국내 인
건비 및 여타 비용(기타)으로 충당하
는데, 국산 기자재비 150만 달러,
EUR 기자재비 70만 달러, 국내 인
건비 140만 달러, 기타 200만 달러

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30%
인 240만 달러와 SAR화 20%(200만
달러 상당) 정도만 Matching에 의존
한다. 즉, USD화 기자재(210만 달
러)와 SAR화 기자재(70만 달러) 구
매 용도 및 현지 인건비(160만 달러)
로 사용하기 위해 환전하지 않고 그
대로 보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에 의한 손실이 환해지를 하지
않은 만큼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원화절상의 10%
에 해당하는 총 56만 달러(560만 달
러×10%)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는 총공사비의 5.6% 정도로 대기업
에 비해 손실률이 3배 정도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 건
설업체가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못한 결
과이다.

참고로 <표 2>는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인데, 경제성장을
감소(△1.13%~△1.66%) 비율보다
위에서 살펴본 해외건설업의 손실
비율(△1.96%~△5.6%)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업체별 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
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세
로 인해 세계 주요국 시장에서 선진
국 업체들과 치열한 수주 전쟁을 치
르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은 분명 우리
의 수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은 타국 통
화 대비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임
에 따라 우리의 수출 경쟁력, 특히 가
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환율 하락은 우리 기업의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공
산이 크므로 향후 추가적인 환율 하

공사 원가	기자재비 : 인건비* : 기타	외산 기자재 : 국산 기자재
비율	50% : 30% : 20%	70% : 30%
금액	500만 달러 : 300만 달러 : 200만 달러	350만 달러** : 150만 달러

주 : 1) * 인건비 비율 ⇒ 국내 인건비 : 현지 인건비 = 140만 달러 : 160만 달러.

2) ** 외산 기자재 결제 금액 350만 달러 중 통화별 비율은 USD : EUR : SAR = 60% : 20% : 20% = 210만 달러 : 70만 달러 : 70만 달러임.

<표 2> 원/달러 환율 10% 하락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주요 기관	소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경제 성장률*
Global Insight	△0.59	△0.40	△2.12	0.15	△1.13(△1.52)
삼성경제연구소	△0.84	△0.76	△3.01	0.37	△1.66(△1.97)

주 : () 안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한 경우임.

락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체들 입장에서 정부의 환율 정책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 기조를 대전제로 발주처에게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거래 통화로 적극 제안하여 특정 통화의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공사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거의 나쁜 전례(KIKO 사태 등)에 기인한 경향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내 건설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5~6년 동안 우리 해외 건설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건설 수주 강세 전망 유효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원화 강세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우리 해외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깝게는 작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약세로 유럽 건설업체들의 약진을, 그 이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경험한 환율 학습효과로 인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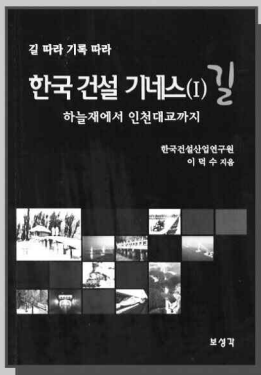
리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상당한 내공이 생겼을 것으로 믿는다.

다시 말해 다른 부분에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 문제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끝으로 우리 해외건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중동에서의 선전이 단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의 고공 행진 지속과 아랍의 봄 이후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발주 물량 등에 힘입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업의 수주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CERIK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